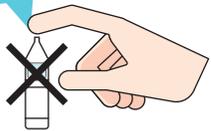


# 1회용 점안제의 안전한 관리

- ▶ 사용 즉시 폐기하며, 약액이 남아도 다른 용기로 옮기거나 재사용하지 않습니다.
- ▶ 유효기한과 보관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킵니다.
- ▶ 손상되었거나 개봉되어 있는 1회용 점안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▶ 한번 개봉된 1회용 점안제는 오염될 수 있습니다.

## 잘못된 사용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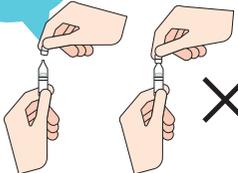
손끝 세균에 오염돼요.



눈에 닿지 않게 하세요!



보관하였다 재사용하지 마세요!



가족이나 친구와 나누어 쓰지 마세요!



점안액이 나오는 용기의 끝부분이 손이나 눈에 닿으면 점안액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.

# 1회용 점안제의 안전한 사용법

**Step 1.**  
손을 깨끗이 씻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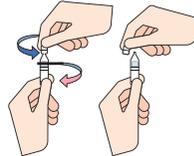
**Step 2.**  
점안할 1회용 용기를 분리합니다.



**Step 3.**  
용기를 세워서 잡고 약액이 용기의 하단에 있는지 확인하고, 현탁액과 같은 제제의 경우 충분히 섞이도록 흔들어 줍니다.



**Step 4.**  
한 손으로 제품상단의 손잡이를, 다른 손으로 제품 하단의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 용기와 뚜껑이 분리됩니다.



**Step 5.**  
최초 사용시 1~2방울은 점안하지 않고 버립니다.



**Step 6.**  
용기의 끝이 직접 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, 눈을 위로 향하게 하고 아래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당긴 후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에 지시된 양을 떨어뜨립니다.



**Step 7.**  
점안 후 \*비루관을 2~3분간 눌러 약액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.



\*비루관: 눈물주머니에서 코 쪽으로 통하는 관.

**Step 8.**  
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,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립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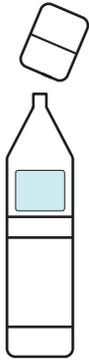
1회용 점안제,  
한 번만 사용하고  
버리세요!

# 1회용 점안제 안전하게 사용하기



# 1회용 점안제란?

보존제 첨가여부에 따른 차이



보존제가 없는 1회용 점안제



보존제가 있는 다회용 점안제

1회용 점안제에는 보존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. 보존제로 사용되는 벤잘코늄염화물 등은 안구 자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, 소프트렌즈를 변색시킨다고 알려져 있어 보존제가 없는 1회용 점안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.

1회용 점안액은 무균제품으로서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, 남은 약액은 바로 버립니다.

1회용 점안제는 어떠한 형태라도 1회만 사용하세요.

# 1회용 점안제, 왜 한번만 사용해야 할까요?

미생물에 의한 오염 가능성



바이러스



곰팡이



박테리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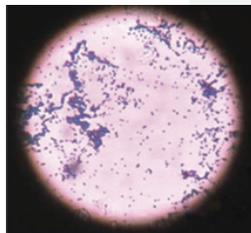
1회용 점안제를 여러 번 사용하면 제품내 미생물이 증가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1회용 점안제는 일단 개봉이 되면 더이상 밀봉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무균상태라 할 수 없으며, 이후 미생물 증식으로 인해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연구결과 점안제를 사용할 때 눈썹이나 눈꺼풀 또는 손에 용기 끝이 닿으면 약액이 오염되어 손에 상주하는 균주와 동일한 균이 개봉된 점안제에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.



1회용 케토롤락 점안제에 실험자의 손에 닿은 면봉으로 도말 후 24시간 배양 결과



그람양성구균



황색포도상구균

그림 : Sharma, Indian journal of ophthalmology (201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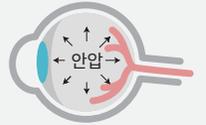


# 점안제의 다양한 적용 목적



먼지를 씻어내고 눈물 생성을 정상화시키는 안구건조증 치료제

녹내장 환자에서 안압을 낮추는 안압감소제



알레르기로 인한 염증을 잡아주는 항히스타민제와 각결막 염증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 및 비스테로이드 항염제



세균잡는 항생제

올바른 사용전 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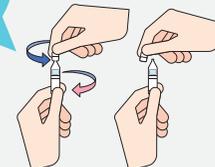
사용 전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!



현탁액은 골고루 섞어주세요!



캡을 완전히 분리해 열어주세요!



사용 전 한두방울은 버리고 사용하세요!

